

여름철 전력 많이 소비해도 좋다?

산자부, 전력 최대수요 6.7% 증가 전망 ... 공급능력 확충 노력

2003년 여름철 전력 최대수요는 2002년에 비해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력 공급능력이 충분해 여름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2003년 여름철 예비전력은 총 631만kw, 공급예비율은 12.9%로 일반적인 국제 전력 예비율 10%를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름철 이상고온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미공급사태 없이 전력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전력 수급실적 및 전망 (단위: 만kw, %)

구 분	2002	2003		증 감
		정상기온시	이상고온시	
공급능력 (증감율)	5,211 (7.0)	5,516 (5.9)	5,516 (5.9)	305
최대수요 (증감율)	4,577 (6.1)	4,885 (6.7)	5,080 (10.9)	308
예비전력 (공급예비율)	634 (13.8)	631 (12.9)	436 (8.6)	▽3

전력 공급능력은 2002년 대비 305만kw 증가한 5516만kw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력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2002년 12월 영광원자력 6호기를 준공했고, 2003년 6월 부산복합 1·2호기를 준공해 2003년 여름 총 190만kw의 전력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7-8월 전력 수요가 갑작스레 증가하더라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축냉식·가스식 냉방기와 고효율기를 보급함으로써 각각 127만kw, 56만kw의 전력을 절감하는 등 여름철 수요증가에 대비했다.

이상고온 및 예기치 못한 대규모 전력설비 고장 등 비상시에는 사전에 미리 기업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 147만kw를 공급하고, 민간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28만kw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발전설비 용량이 부족하고, 송전능력에도 제약이 있어 별도의 수급대책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6/05>